

開化期 日本의 韓國語 學習書 -言語資料로서의 性格과 成長性을 중심으로-

李康民

To cite this article : 李康民 (2006) 開化期 日本의 韓國語 學習書 -言語資料로서의 性格과 成長性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67, 65-80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開化期 日本の 韓國語 學習書*

—言語資料로서의 性格과 成長性を 중심으로—

李康民**
i-kangmin@hanmail.net

<要 旨>

本稿は文明開化期(1880-1904)の日本で作られた6種の代表的な韓国語学習書を調査・分析し、これらの学習書がもつ言語資料としての性格を究明すると同時に、学習書としての成長性を考えてみ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本稿での具体的な考察対象は、『韓語入門』(1880)、『善隣通語』(1881)、『日韓英三国対話』(1892)、『日韓通話』(1893)、『日韓會話』(1894)、『韓語會話』(1904)の6種であるが、これらはいずれも各々の時期を代表できる実用的な学習書としての象徴性をもつものである。

調査の結果、これらの学習書が採択している意味分類による部門構成は従来の『交隣須知』のそれと類似した傾向を見せており、『交隣須知』は江戸時代だけではなく近代初期においても最も影響力のある韓国語学習書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しかし、一方においては、これらの学習書にはハングルの音韻構造と発音に関する解説を収録し、韓国語本文に対しては片仮名でその発音を標示するなど、前近代期には見られなかった現象も少なからず見受けられる。相互対話式の実用的な韓国語本文を導入したのもこの時期の学習書の特徴として指摘できるであろう。また、対馬以外の地域の出身者も本格的に韓国語学習書を作るようになったことも注目要する。開化期は対馬の韓国語独占権を解体していく時期でもあ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変化から近代期に入った韓国語学習書の成長性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なお、これらの学習書に内在する日本語と韓国語は、各々近代の過渡期的な言語現実を反映したものであり、特に韓国語の場合、近代語彙史研究に貴重な情報を提供し得る性質のもの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た。

キーワード：『韓語入門』，『善隣通語』，『日韓英三国対話』，『日韓通話』，『日韓會話』，『韓語會話』

1. 머리말

本稿는 문명개화기(1880-1904)에 일본에서 간행된 6종의 대표적인 한국어 학습서를 語學史的인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여 이들 학습서가 가지는 言語資料로서의 성격을 究明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근대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강화도조약(1876년)이 체결되어 당시 朝鮮의 開港地에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하게 된 1880년의 일로, 이 후 한국어 학습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성장되어 갔다. 근대 이전의 에도(江戸) 시대에도 對馬島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²⁾이 이루어져 오긴 했으나 이 시기의 학습서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A00368)

** 漢陽大 日本語・文化學部 教授

- 1) 本稿에서는 조사대상시기에 해당하는 개화기를 1880-1904년으로 想定하였다. 1880년을 조사대상시기의 上限으로 잡은 것은 이 시점에 근대일본의 한국어 학습서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統監政治가 시작되어 邦交育성이 시행되는 前段階까지를 조사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1904년을 下限으로 삼았다.
- 2) 근대 이전의 에도(江戸) 시대에는 對馬島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인 학습서로서 『交隣須知』와 『隣語大方』 등이 오늘날까지 필사본의 형태로 傳存하고 있다. 특히 이 두 학습서는 메이지(明治)기에 접어들어 일본외무성에 의한 官版本으로서 각각 1881년과 1882년에 간행되기에 이른다. 本稿에서는

는 근대문명의 세례를 받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前近代期에 만들어진 에도 시대의 한국어 학습서와는 對極적인 위치에서 비교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학습서에는 한국어 본문에 대응하는 대역 일본어를 가지고 있어 에도 시대의 학습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화기 학습서의 자료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本稿는 준비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분석의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6종의 학습서를 선정하였다.

1. 『韓語入門』(1880年刊) 寶迫繁勝著
2. 『善隣通語』(1881年刊) 寶迫繁勝著
3. 『日韓英三國對話』(1892年刊) 赤峰瀨一郎著
4. 『日韓通話』(1893年刊) 國分國夫著, 國分象太郎校正
5. 『日韓會話』(1894年刊) 參謀本部編
6. 『韓語會話』(1904年刊) 村山三男著, 山座円次郎校閱

이들 학습서는 개화기의 각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습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1과 2는 메이지(明治)기에 접어들어 최초로 제작된 개화기의 초기 단계의 학습서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3은 최초로 제작된 한·영·일 3언어의 대역 회화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는 실제 부산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했던 일본인의 저술로서 당시 새로운 스타일의 학습서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5는 참모본부에서 군사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이며, 6은 경부철도 개통을 앞두고 철도 관계자에 의해서 제작된 실용적인 학습서이다. 특히 5와 6은 한국의 근대사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학습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들 한국어 학습서의 제작 배경과 언어자료로서의 성격을 살펴본 후 이들 학습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발전되어간 모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개화기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1) 『韓語入門』(1880年刊)

1880年 12月刊. 上下 2卷. 上卷은 題書, 緒言, 凡例 그리고 목차와 본문을 합하여 50張을 헤아리며, 下卷은 31張의 본문과 跋, 正誤表로 구성되어 있다. 下卷末에는 「明治十三年十一月九日版權免許, 同年十二月十八日出版御届, 著者及出版人 山口県 宝迫繁勝 周防国熊毛郡浅江村第八十二番地」라는 刊記를 갖는다.

저자 호세코 시게가쓰(寶迫繁勝)는 무엇보다 메이지(明治)14년(1881)版 『交隣須知』와

이들 前時代의 학습서와는 별도로 메이지기에 새롭게 제작된 학습서를 주된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또한 기본어휘에 있어서도 「年月日数」, 「金錢之称」, 「斗量数之称」, 「尺度数之称」, 「權衡数之称」, 「商語問答」 등의 항목을 마련하고 있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용적인 측면, 특히 상업 활동에 필요한 회화용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본서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일 양언어의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두기로 한다.

| 正格語 | 東京世俗語 | 韓語正格 | 慶尙道世俗語 |
|--------------|-----------|------------------|------------------|
| 落 オチル | オッコチル | ゴミガタツ 믄지 니러난다 | ゴミガタツ 므지 이러난다 |
| 直行 マスグニユク | マ-アツツグニユク | ハサミ 가 익 | ハサミ 가 세 |
| 眞白 マシロ | マ-アッチロ | カヒコ 누 에 | 蚕 누 비 |

근대 일본에 있어서 각 지역의 방언 조사가 본격화된 것은 1902년에 國語調査委員會가 설치된 이후의 일이다. 1880년의 시점에 만들어진 본서에 한·일 양언어의 방언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역시 본서의 근대성을 엿볼 수 있는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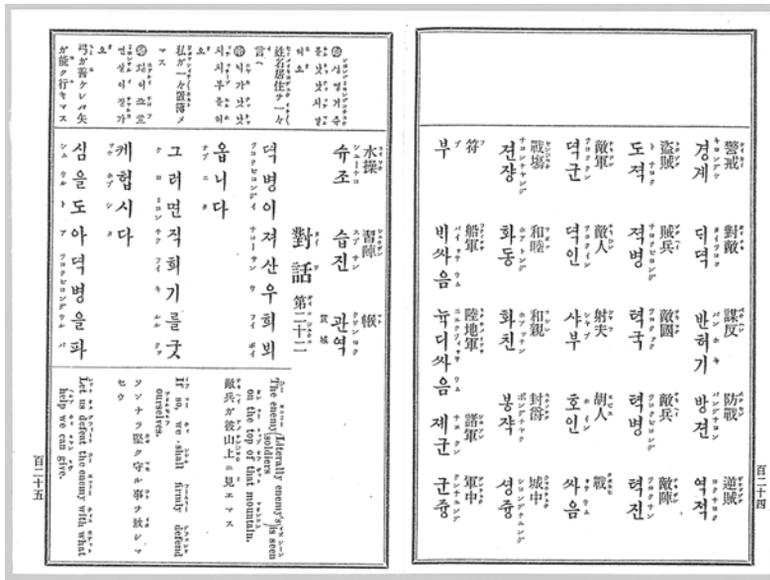
(3) 『日韓英三國對話』(1892年刊)

본서는 1892年(明治25年)에 오사카(大阪)의 오카모토 호분칸(岡本宝文館)에서 발행된 한국어 학습서이다. 표지의 영문명은 The Akamine's New Linguist, 内題로는 The New Linguist or Conversations in Japanese, Corean and English라는 영문 제목을 갖는다. 저자는 당시 구마모토(熊本) 출신의 신문기자였던 아카미네 세이치로(赤峰瀬一郎)³⁾이다. 저자에 대한 상세한 전기는 전해지지 않으나 1880년부터 5년간 샌프란시스코에 유학한 경험을 가진 인물로 귀국 후 일본의 미국 전문가로 활약하는 한편, 1893년에 창간된 『新文學』의 주필을 역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본서는 第1部와 第2部の 2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 내용상의 구성은 第1部の 「章前項目」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3部 형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章前項目 : 「日韓言語之關係」 「일본언문이로하」 「濁音 對 清音」
「日本イロハ歌」 「英語並ニ韓語發音考」

3) 본서의 自序에 의하면 본서의 제작 과정에서 한국어에 관한 것은 한국인 李重元과 玄采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뒤에 소개할 『日韓通話』(1893)의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특히 개화기 최대의 번역가로 알려진 玄采가 한국어 학습서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었던 점은 주목을 끈다.



『日韓英三國對話』

- 第1部 : 「對話」 第1章~第24章
- 第2部 : 「雜項·單語·對話」 第1章~第26章

第1部の 구성이 「對話」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본서가 본격적인 회화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對話」부의 개별 章은 「日本へ行く朝鮮官吏ノ談話」 「遊學生ノ談話」 등과 같이 구체적인 場面를 설정하여 주고받는 대화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한 예를 아래에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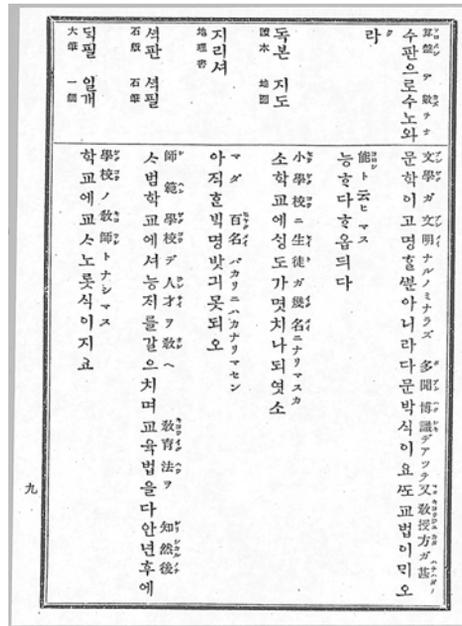
- 우리 일본 가오 (ウリイルポンカオ)
We are going to Japan. 私供ハ日本へ行キリマス
- 무슨 일로 일본 가시오 (ムスンイル로일PON칸쇼)
On what business are you going to Japan? 何事デ日本へ行キマスカ
(第1部 第3章, p.8 「日本へ行く朝鮮官吏ノ談話」)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문의 기본 구성은 한국어 문장을 한글로 적고 그 발음을 가타가나(片仮名)로 附記함과 동시에 해당 문장의 의미를 영어와 일본어로 병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어 문장에 대한 발음을 가타가나(片仮名)로 표기하는 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善隣通語』(1881)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어 본문이 문답식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본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서 역시 근대적인 학습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日韓通話』 (1893年刊)

본서는 고쿠부 구니오(国分国夫)의 편집과 고쿠부 쇼타로(国分象太郎)의 교정에 의하여 1983년 東京築地活版製作所에서 인쇄된 총 25장(226 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어 학습서이다. 제1장 「朝鮮諺文」에서 제21장 「家禽獸」까지는 「日韓通話」, 제22장 「政治及軍隊」에서 제25장 「刑罰」까지는 「日韓通話増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増補의 편저자는 国分象太郎로 되어있다. 따라서 1장~21장의 본문은 国分国夫가, 22장~25장은 国分象太郎가 각각 작성한 후에 전체적으로 国分象太郎의 교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日韓通話』

国分国夫와 国分象太郎는 친형제지간으로 쓰시마(對馬島)에서 자라 한국어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国分国夫는 당시 釜山語學所의 교관으로 활약했으며, 그의 형인 国分象太郎는 東京外國語學校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후 공사관의 통역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그는 1904년부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수행했으며 후에 조선총독부 인사 국장으로서 식민통치에 관여했다. 다만 国分国夫는 본서 말미의 刊記에 「編輯人長崎県 対馬国下県郡 棧原町一番戸士族 故 国分国夫」로 되어있어 이 책이 간행된 1893년 9월의 시점에는 이미 故人인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의 한국어 본문은 가타가나(片仮名)에 의한 발음은 표시되어있지 않고 일본어 대역만을 오른쪽에 적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본문의 내용은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이다.

- 당목이 펴 만이 와서 갑시 띠우 싸오
(唐木ガ非常ニ沢山来テ、代価ガタイソーヤスゴザル) (商業, p.111)
- 일본돈을 조선돈과 맞구어 주소
(日本錢ヲ朝鮮錢トカヘテ下サイ) (商業, p.117)

위의 용례는 본서의 「商業」門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의 일부를 轉載한 것인데 회화문의 성격이 同時代에 사용되었던 明治年刊 『交隣須知』의 본문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交隣須知』의 「賣買」門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용례는 同時代에 발간된 두 학습서의 차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物化 물화 곳 도흐면 살 사름이 만스오리
(物化サヘヨケレバ、買人ガ多ウコザラウ) (明治14年本, 二46a)
- 市直 시직은 얼마나 흥던고
(相場ハイカホドシタヤラ) (明治14年本, 二47a)

이와 같은 점에서 생각할 때, 『日韓通話』는 실용성의 입장에서 종래의 한국어 학습서를 크게 개선시킨 새로운 형태의 회화서⁴⁾로서 1904년에는 4판을 발행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日韓會話』(1894年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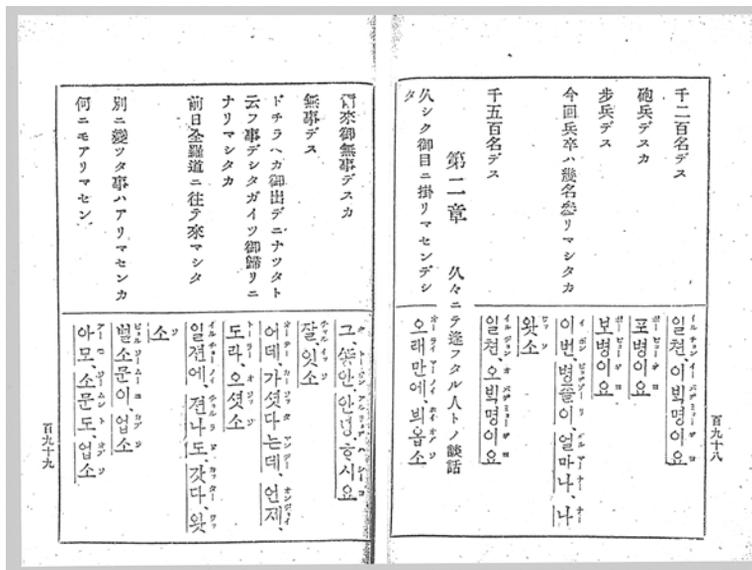
본서는 1894년 3월에 일본의 참모본부에서 간행한 한국어 학습서이다. 본문 256 페이지의 소형책자(8.2×12.9cm)인 본서는 병사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군사용 회화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의 발간일인 1894년 3월은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4개월 전의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이 만들어진 근대사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문은 도합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日清韓重要地名」과 「諺文ノ成立」을 권말에 수록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년, 월, 일, 척도, 중량 등의 算術的인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제1편과 「食事ニ関スル談話」, 「旅行ニ関スル談話」와 같이 특정한 장면에 따른 회화문을 수록한 제7편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1편과 제7편의 구성을 아래에 轉載해 보기로 한다.

- 第一編
第一 基數, 第二 月稱, 第三 日稱, 第四 年稱, 第五 時稱,
第六 通貨ノ算數, 第七 升量, 尺度, 重量及單獨稱量

4) 본서에 대하여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明治時代に於ける新式會話の先驅をなすもの」라고 언급하고 있다. (『増訂朝鮮語學史』刀江書院, 1940, p.63)

- 第七編
 - 第一章 始メテ逢ヒシ人トノ談話
 - 第二章 久々ニテ逢ヒタル人トノ談話
 - 第三章 來客ニ對スル談話
 - 第四章 食事ニ關スル談話
 - 第五章 旅行ニ關スル談話
 - 第六章 同上馬夫トノ談話
 - 第七章 途上ニテ起ルヘキ談話
 - 第八章 旅宿ニテ起ルヘキ談話
 - 第九章 商店ニテ起ルヘキ談話
 - 第十章 食料品売買ノ談話



『日韓會話』

나머지 2~6편은 「天文」 「方位」 「地理」 등과 같이 『交隣須知』와 유사한 部門別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 部門의 구체적인 문례에 있어서는 아래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交隣須知』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간결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

- 하늘님, 아니면, 알슈, 업소 (天トウサマデナケレバワカラナイ) (天文, p.36)
- 헝가, 벌서, 놉핫소 (日ガ疾ク高ク上リマシタ) (天分, p.37)

이와 같은 본문의 기술 태도는 본서의 서언에 명시되어 있는 「本書纂述ノ目的ハ朝鮮語未知ノ軍人ヲ利スルニ在リ。故ニ用語ハ務メテ平易簡略ヲ主トシ成ルヘク軍隊必要ノ語言ヲ撰錄セリ」라고 하는 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서는 군사 목적으

로 제작된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로서 1904년에는 6권이 간행되는 등,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에 걸쳐 일본군에 널리 보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 「韓語會話」(1904年刊)

본서는 1904년 1월에 도쿄(東京)의 大日本圖書株式會社에서 발행된 한국어 학습서이다. 표지는 「村上三男 編纂, 山座円次郎 校閱」, 内題에는 「村上三男 著, 山座円次郎 閱」로 되어 있어 본서의 간행에는 무라가미 미쓰오(村上三男)와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자 村上三男에 대해서는 상세한 傳記를 알 수 없으나 책 말미의 刊記에 「京釜鐵道株式會社 社員」으로 기입되어 있어 구한말에 한국에 들어와 경부선 건설에 참여했던 인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校閱者인 山座円次郎은 1893년 玄洋社⁵⁾의 사원으로 부산 영사관의 관원을 겸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본서는 1904년의 시점에 경부철도 관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어 학습서라는 점에서 먼저 주목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가 간행된 1904년 1월은 경부철도가 완공되기까지 10여 개월을 남겨놓은 시기이며 동시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경부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필요하게 될 한국어의 수요를 예측하고 만들어진 학습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제1편이 한국어의 문자와 발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회화서로서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기능을 가진 것은 제2편 「會話」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會話」編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에 가타가나(片仮名)로 발음을 표기하고 그에 대한 일본어 대역을 併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한국어에 대한 해설을 注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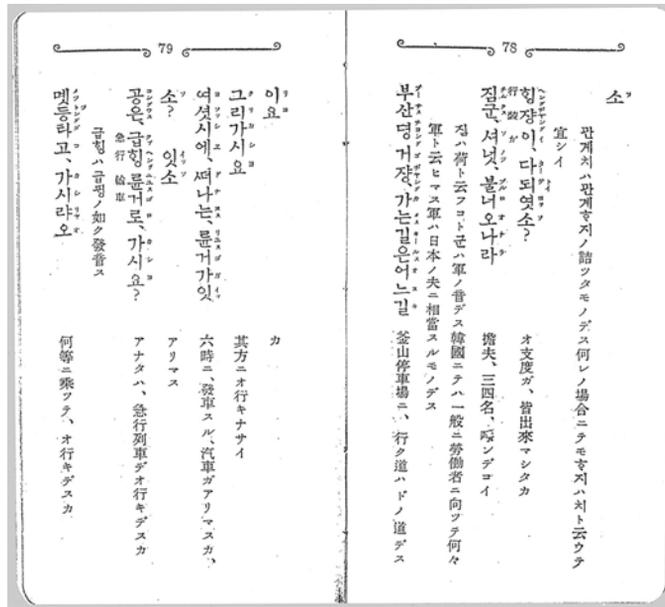
○ 어디까지 승표를 사시오 何処マデノ乗票ヲ買フノデスカ

승표를 사시오ハ「乗票ヲ用キナサイ」ト云フコトデス。

「アクセント」ニ依リ問ノ言葉トナリマス (「停車場用語」 p.39)

또한 본서 「會話」編의 문례 중에는 다음과 같이 철도와 관계된 내용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여타의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는 본서의 독자적인 作例로 판단된다.

5) 玄洋社は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우익 단체로, 後에 이 玄洋社로부터 黑龍會, 浪人會 등이 배출된다.



『韓語會話』

- 오분간썸 덩거호오 オブノカスヂニム チョンゴコハオ 五分間ばかり停車シマス (「停車場用語」 p.38)
- 부산 덩거장 가는 길은 어느 길이요 부스안 툄깡장 가는 길은 어느 길이요
釜山停車場ニ、行ク道ハドノ道デスカ (「京仁線」 p.78)

아울러 본서는 「鐵道用語」를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서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서가 단순히 한국어의 습득만이 아니라 철도용어에 대한 교육도 함께 고려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3. 개화기 학습서의 특징과 변화 과정

앞에서 살펴본 6종의 한국어 학습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과 체제가 진화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部門 구성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공통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에도(江戸)시대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明治期에 접어들어 公刊된 『交隣須知』와의 영향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善隣通語』와 『韓語會話』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서들과 『交隣須知』와의 部門 구성의 공통점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먼저 편의상 明治14年(1881)本 『交隣須知』의 部門 배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交隣須知』(1881)의 部門 배열

- (卷1) 天文, 時節, 晝夜, 方位, 地理, 江湖, 水貌, 舟楫, 人品, 官爵, 天倫, 頭部, 身部, 形貌, 羽族,
 (卷2) 走獸, 水族, 昆蟲, 禾黍, 蔬菜, 農圃, 果實, 樹木, 花品, 草卉, 官宅, 都邑, 味臭, 喫貌, 熟設,
 買賣, 疾病, 行動,
 (卷3) 墓寺, 金寶, 鋪陳, 布帛, 彩色, 衣冠, 女飾, 盛器, 織器, 鐵器, 雜器, 風物, 視聽, 車輪, 鞍具,
 戲物, 政刑, 文式, 武備, 征戰, 飯食,
 (卷4) 靜止, 手運, 足使, 心動, 言語, 語辭, 心使, 四端, 大多, 範圍, 雜語, 逍遙, 天干, 地支

이와 같은 의미 분류에 의한 部門 배열은 개화기의 학습서에서도 중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아래에 『韓語入門』(1880), 『日韓英三國對話』(1892), 『日韓通話』(1893), 『日韓會話』(1894)의 순으로 이들 학습서의 部門 배열을 轉載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 『韓語入門』(1880)의 部門 배열

- 天文, 時節, 晝夜, 方位, 地理, 江湖, 水貌, 舟楫, 人品, 官爵, 人倫, 頭部, 身體, 形貌, 羽族, 走獸, 水族, 昆蟲, 禾黍, 蔬菜, 農圃, 果實, 樹木, 花品, 草卉, 都邑, 官宅, 飲食, 疾病, 社寺, 杠梁, 金寶, 鋪陳, 布帛, 彩色, 衣冠, 女飾, 盛器, 織器, 鐵器, 雜器, 風物, 視聽, 車輪, 鞍具, 戲物, 文式, 武備

○ 『日韓英三國對話』(1892) 第2部(6章~25章)의 部門 배열

- 天文元行, 地理, 晝夜, 時節, 方位, 官爵, 人品, 人倫, 身軀, 樹木, 花草, 穀類, 果實, 蔬菜, 海草, 藥種, 禽類, 獸類, 水族, 昆蟲, 金屬, 鐵器, 盛器, 雜器, 雜品, 飲食物, 織物, 武器, 戰陣, 文書, 民政, 刑罰, 彩色, 衣冠, 國土, 都邑, 官宅, 舟楫, 疾病, 雜語

○ 『日韓通話』(1893)의 部門 배열

- 基數, 天然, 月日, 時期, 身體, 人族, 國土及都邑, 文藝及遊技, 官位, 職業, 商業, 旅行, 家宅, 家具及日用品, 衣服, 飲食, 草木及果實, 家禽獸, <增補> 政治, 教育, 船車, 刑罰

○ 『日韓會話』(1894) 第2編~6編의 部門 배열

- 天文, 方位, 地理, 建設物, 國土, 金寶, 人族, 官位, 親族, 疾病, 家宅, 家具, 飲食物, 食器, 衣冠, 織物, 武器, 馬具, 鐵器, 文房具, 雜器, 舟車及輜輿, 穀物, 蔬菜, 草木, 花卉, 果實, 水族, 鳥類, 獸畜

위와 같은 部門 배열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韓語入門』과 『日韓英三國對話』의 部門이 『交隣須知』의 그것과 두드러지게 유사하다는 것이다. 밑줄 친 部門에는 小異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같은 部門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에는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交隣須知』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日韓通話』에 있어서도 『交隣須知』의 禾黍, 蔬菜, 農圃, 果實, 樹木, 花品, 草卉 등의 部門을 飲食과 草木及果實로 통합하여 다루고 있으며, 『交

『隣須知』의 女飾, 盛器, 織器, 鐵器, 雜器 등은 家具及日用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日韓會話』의 경우, 『交隣須知』와 小異를 보이고 있는 「官位」 「家宅」 「武器」 「馬具」 등은 각각 『交隣須知』의 「官爵」 「宮宅」 「武備」 「鞍具」 등에 대한 同義語的인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위에 제시한 학습서들의 部門 구성은 큰 흐름에 있어서 『交隣須知』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에도(江戶)시대의 대표적인 한국어 학습서였던 『交隣須知』는 개화기에 들어서도 한국어 학습서의 典範으로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의미 분류에 의한 部門名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들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交隣須知』나 『隣語大方』과 같이 에도(江戶)시대에 사용되었던 前近代期의 한국어 학습서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들 학습서는 대부분의 경우 한글의 음운 구조와 발음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메이지(明治)期 이전의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현상은 가타가나(片仮名)를 이용하여 한국어 본문에 대한 발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메이지期 이전의 학습서에서는 『全一道人』과 같이 한국어 본문 자체를 가나(仮名)만으로 표기한 경우는 있었으나 한글로 쓴 한국어 본문에 대해 가나로 발음을 표시한 학습서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드물게 『交隣須知』의 필사 과정에서 발음을 표시해 놓은 文面이 눈에 띄는 경우는 있으나 본래의 『交隣須知』는 한국어 본문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前近代期의 한국어 학습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訓導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개화기의 그것은 학습자 스스로 독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이지期에 들어 상호 대화식의 한국어 본문이 도입된 것도 이 시기 학습서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서양의 어학서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습서의 저자가 쓰시마(對馬島) 이외의 지역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 제시한 개화기 학습서들 가운데 쓰시마 출신의 저자는 유일하게 『日韓通話』만이 확인될 뿐이다. 개화기는 쓰시마의 한국어 독점권을 해체시켜가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이들 개화기 학습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과 체제가 진화되어가는 학습서로서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交隣須知』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학습서 가운데에는 한국어 기본어휘의 선정이나 제시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 『交隣須知』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그 영향의 경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日韓英三國對話』나 『日韓通話』는 『交隣須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韓語會話』에 이르러서는 『交隣須知』와 무관한 독자적인 체재와 내용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交隣須知』 또한 재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그 결과 『校訂交隣須知』(1904년)의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4. 일본어와 한국어의 諸問題

그렇다면 이들 개화기 학습서에 보이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언어연구의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일본어에 보이는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무엇보다 動詞의 활용형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서의 경우, 2段動詞의 1段化 현상이 확인되는데 일반적인 경향으로서는 1段動詞와 2段動詞가 병용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過ヲ改メルト云フカラオ許シナサイ (日韓通話, p.68)
- 監司ハ一道ヲ治ムル高ヒ官デ禄モユタカ德斯 (日韓通話, p.97)
- 長者ヲ辱シメルカラアースルノ德斯 (日韓會話, p.69)
- 密ニ城壁ヲ越ユル処ガアリマス (日韓會話, p.21)

또한 八行5段動詞의 경우에 있어서도 ウ音便形과 促音便形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 椿ト春府ト云フ詞ハ他人ノ父親ヲ敬フテ云フ詞デス (日韓通話, p.59)
- 味ガロニ合ッテヨクタベマシタ (日韓通話, p.167)
- 是ハ私ガ京城カラ買フテ持ッテ来マシタ (日韓英三國對話, 第2部 p.114)
- オ買成サルナラバ代価ヲ早く払ッテ下サイ (日韓英三國對話, 第1部 p.93)

이와 같은 현상은 구어와 문어, 방언과 동경어가 혼재되어 있던 근대어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학습서의 일본어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현상으로서 動詞「行く」의 連用形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학습서에서는 動詞「行く」의 連用形이 促音便形인 「イッテ」와 함께 イ音便形인 「ユイテ」로 나타나는 문례가 散見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明治刊本 『交隣須知』(1881, 1883), 『日韓英三國對話』(1892), 『日韓通話』(1893), 『韓語會話』(1904) 등에 광범위하게 보이고 있어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에 보이는 日本語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 ◎ 附テ往^テダマシテ元ノ様ニ連テイラッシャイ (『日韓英三國對話』1部, p.83)
- ◎ 一昨年日本へ往^テイテ翌年マデイマシタ (『日韓通話』, p.41)
- ◎ 金仏ヲ新ニ安置シタ外云フカラ往^テイテ見物イタシマセウ (『日韓通話』, p.75)
- 此ノ道ヲ行^テイテ、彼ノプラットホームニ出テ御行キナサイ (『韓語會話』 p.53)
- 行^テイテアノ人ニ尋ネテゴ覽ナサイ (『韓語會話』 p.120)

이와 같은 「行く」의 連用形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먼저 첫 번째는 地域性的의 문제가 결부된 현상으로서의 해석 가능성이다. 이 경우, 당시의 한국어 학습서의 제작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九州地域이 그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문어적인 요소가 당시의 구어 속에 반영된 현상으로서 해석하는 길이다. 이 경우 「ユイテ/ユイタ」와 같은 형태를 완전한 문어로 취급하기는 어려우나 일종의 雅語的인 표현으로서 동일 형태가 化石化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現段階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다.

한편 이들 학습서의 한국어에도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주목을 끄는 현상이 散見된다. 예를 들어 다음에 보이는 「익미(曖昧)히」의 語義 변화에 대해서 이들 학습서는 示唆的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 나라의서 赦가 느려 이왕 익미(曖昧)히 귀양갓던 사름이 풀너왓소 (『日韓通話』 p.77)
- 디방관이 밝지 못흐면 익미(曖昧)히 죄를 당흐는 일이 잇다흐니 그러면 원통흐지요 (『日韓通話』, 增補, p.18)

즉 위에 보이는 「익미(曖昧)히」는 그 어느 쪽도 문맥상으로 볼 때 「억울하게」 또는 「원통하게」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이것은 『新增類合』(1664)의 「冤 익미 원」이란 기술과도 부합되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익미(曖昧)히」의 본 뜻이 일본어의 영향에 의해 오늘날과 같이 「분명치 않게」의 의미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되거나 개화기에는 여전히 본 뜻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火輪船」 「地理學」 등 근대문명어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는 한자어가 散見되는 등, 이들 개화기의 학습서는 한국어의 어휘사적인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개화기(1880-1904)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6종의 대표적인 한국어 학습서의 제작 배경과 언어자료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 학습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이들 학습서에 보이는 의미 분류에 따른 部門 구성은 『交隣須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交隣須知』는 前近代期뿐만 아니라 近代初期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어 학습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학습서가 『交隣須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학습서의 대부분의 경우 한글의 음운 구조와 발음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으며, 가타가나(片仮名)를 이용하여 한국어 본문에 대한 발음을 표시하는 방식은 메이지(明治)期 以前の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또한 상호 대화식의 실용적인 한국어 본문이 도입된 것도 이 시기 학습서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의 한국어 학습서는 쓰시마(對馬島) 이외의 지역의 출신자도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화기는 쓰시마의 한국어 독점권을 해체시켜가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近代期에 접어든 한국어 학습서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들 학습서에 보이는 일본어는 메이지期の 과도적인 언어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근대어휘사적인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参考文献 ▶

- 李康民(2002) 「메이지(明治)期 英學資料에 보이는 日本語의 諸相」 『日本語文學』 第15輯
 _____(2003) 「1893年刊 『日韓通話』의 日本語」 『日本語文學』 第17輯
 _____(2004) 「『韓語入門』과 『善隣通語』」 『日本語文學』 第23輯
 _____(2005) 「1892年刊 『日韓英三國對話』에 대하여」 『日本學報』 第63輯
 大曲美太郎(1936) 「釜山港日本居留地に於ける朝鮮語教育」 『青丘學叢』 24号
 小倉進平(1934) 「釜山における日本の語学所」 『歴史地理』 第63卷 第2号
 梶井陟(1978) 「朝鮮語學習書の変遷」 『三千里』 第16号
 桜井義之(1974)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 『韓』 Vol.3 No.7
 _____(1979) 『朝鮮研究文献誌 明治大正編』 竜溪書舎
 山田寛人(1998) 「朝鮮語學習書・辞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 -1880年~1945年-」 『朝鮮學報』 第169輯

- 투 고 : 2006. 2. 28
 ■ 심 사 : 2006. 3. 20
 ■ 심사완료 : 2006. 4. 25